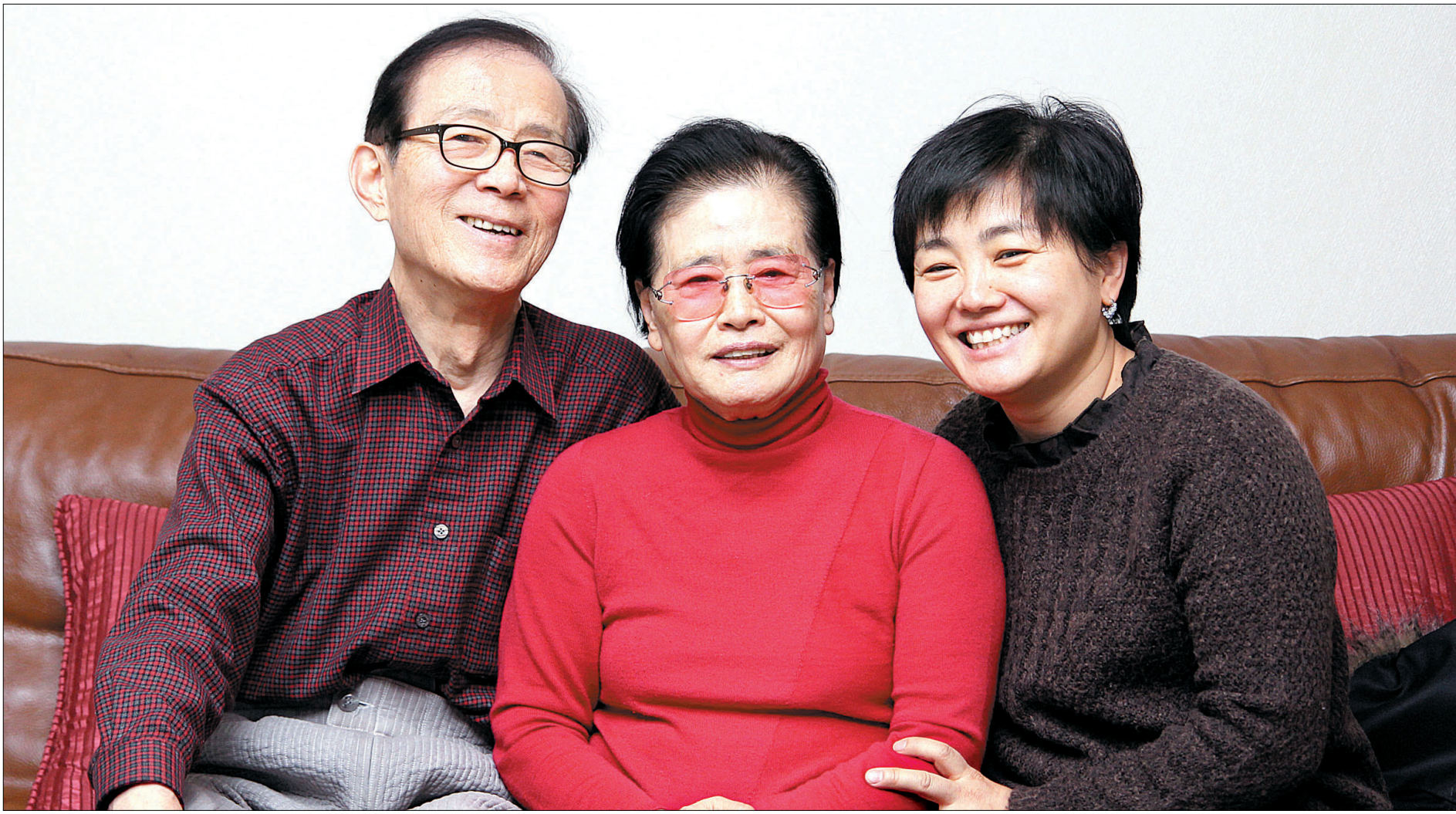


달력 동그라미 보며 기다리는 노인들

아픈 이웃 돌보는 의사 조남인 보살 가족



조남인 원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가족들은 어머니 대도행 보살부터 수심부터 재비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조 원장이 노인요양원과 복지관의 의료진료 등 주중 대부분 봉사를 나가지만 가족들이 가사일을 나눠가며 돕고 있다. 또 각자의 분야에서 봉사와 전법을 함께 하고 있는 불자가족이다. 사진 왼쪽은 남편 정지현 거사, 오른쪽은 딸 정인조 원장



조남인 원장이 기초수급자인 한 어르신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다. 40년간 사찰에서 봉사한 이 어르신은 연고가 없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구랍 20일 토요일, 삼천사 인덕원 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의 방에서 난데없는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진료봉사에 앞서 의료진이 노래를 부르는 것,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들과 지켜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희심이 묻어났다.
 특히 의료진을 이끄는 조남인 병원장(80·법명 능인성)에 대한 어르신들의 찬탄이 이어진다. 목수술을 하고, 말을 못하는 어르신부터, 기력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웃으며 다가가는 손길에 서로 웃음꽃이 피어난다.
 “환자들이 너무 예뻐요. 할머니들도 저만 보면 좋다고 뽀뽀하고 난리예요. 사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조남인 병원장은 가정의학 전문의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다 의사인 딸에게 병원 운영을 맡기고 1997년부터 재능기부를 시작했다. 밝게 웃는 그 모습에서 자비보살의 모습이 비춰진다.
 조 원장과 함께 하는 의료진은 총 6명. 정서욱·안옥분·이영자·이경자·송재희 씨로 30년 이상 근속한 수간호사들로 이뤄진 이른바 ‘드림팀’이다. 이들의 활동은 벌써 16년째다. 자원봉사자들은 서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수간호사 출신들로 은퇴 후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 평소 서로 여는 동네아주머니들처럼 수다를 떨다가도 진

료시간에는 처방과 차트작성, 주사, 조제 등의 역할을 나눠 현역과 다름없이 전문적으로 일한다.
 조 원장은 의료팀과 함께 토요일과 수요일에는 삼천사 인덕원 노인복지시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삼천사가 수탁 운영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돌봄노인요양원 등 매주 5곳의 복지관을 찾아 하루 100여명의 환자를 돌본다. 조 원장을 비롯한 이들 봉사단은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가는 등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검진·처방·주사·조제를 해주고 일일이 등을 쓰다듬어 안아주는 것은 사실 고령의 이들에게 힘든 일이다. 요양원에서는 직접 변비에 걸려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쾌변을 보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용변 후에는 씻겨 드리기도 한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은 목욕시키는 일도 진행한다.
 여든의 나이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관심, 말 한마디예요. 사실 이들이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회에 있을 때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건,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건 몸이 아픈 자신을 모시지 못하는 자식들에 대한 마음 등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요. 가만히 가서 밝은 모습으로 손을 잡아주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치매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도 따뜻한 마음은 압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향

16년째 요양원·복지관에서 의료봉사
 여든 나이에 환자와 함께 노래
 “진료는 몸치료가 아닌 마음치료”
 어머니 대도행 보살 불심에 감동
 치과 의사 손녀딸까지 봉사 나서
 성운 스님 “4대째 보살행에 감사”

상 저희를 기다려요.”
 조 원장을 비롯한 의료팀은 어르신들이 많을수록 일도 늘어난다. 인덕원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자실의 벽 한쪽은 봉사 스케줄로 뿔뿔하다.
 하지만 조남인 원장은 “병원을 운영할 때보다 봉사하는 지금이 더 좋다”며 “그동안 의사생활 중에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힘들어지지만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달력에 동그

라미를 치고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아 봉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
 기자가 찾은 이날에는 기초수급자인 한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남인 원장은 어르신님의 손을 잡고 편히 좋은 곳에 가실 것이라며 다독였다.
 조 원장은 “요양원은 대부분이 중증환자들이고, 연고가 없는 분들도 많다”며 “생의 마지막 과정으로 있는 분들이 많기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차남 인덕원 노인요양원 원장은 “조남인 원장님은 집으로 말하면 용마루 같은 분”이라며 “조 원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어머니 대도행 보살의 감화로 불교에 입문
 사실 조남인 원장이 어려서부터 불자의 길을 걷은 것은 아니었다. 서초구의 자택에서 다시 만난 조남인 원장은 불법에 귀의해 살아가는 평범한 불자가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들 사는 거야 다른 불자들과 별한 다를 것 없죠. 부처님 법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죠.”
 하지만 이들 가족은 유머거사라 칭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편 지원 정지현 거사와 능인성 조남인 원장, 딸 정인조 씨는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불법을 닦고 또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남편 정지현 거사는 1950년대부터 불교를 공부해오며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법활동을 펼쳤다. 청담 스님이 조계사에서 강연한 모습에 발심해 현장에 있을 때는 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의 강연 등 유명한 강의라면 주변의 이들을 이끌고 발 벗고 찾아갔다. 딸인 정인조 씨도 병원 운영 틈틈이 캄보디아, 티베트 의료봉사를 비롯해 우리는선우 활동 등으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들 가족이 불교에 열정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예전부터 불자이지만 마음뿐이었다고 정지현 거사는 고백한다. 온 가족이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독실한 불자였던 조 원장의 어머니 대도행(大道行) 보살의 영향이다. 대도행 보살은 삼천사 성운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을 심시 일반 후원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보시행을 펼쳐온 보살이다.
 “어머님은 평소에도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없는 곳간에도 모두 털어 도왔던 분이셨어요. 특히 스님들이 학비며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찾아오면 마을에 내려가 돈을 빌려서 보내 드리곤 하셨죠.”
 정지현 거사는 “평소 장모님의 자비실천행을 보며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모님은 평소에도 인과의 법칙, 그리고 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큰이들이 어려서 아팠는데 10살 전에

2015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法住寺

조실	천호	월서
문장	진웅	월성
회주	미룡	월탄
주지		현조
관장		성천

교무국장 각주 재무국장 정덕 선학승가대학원장 청원
 포교국장 도암 호법국장 각문 보은포교원 현지
 연수국장 보관 포교차장 무경 교구신도회장 최윤철
 원주 법안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번지 ☎ 043)543-3615 www.beopjusa.or.kr

2015 새해새살 자비명운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조실	영허
회주	혜창
주지	흥선

사부대중일동

www.jikjisa.or.kr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054)429-1700 FAX : 054)436-3174